

“몰랐던 나 발견, 재밌어요”



KBS2 '우리 집에 사는 남자' 흥나리 역 수애 웹툰 원작 로맨틱코미디... 코믹한 허당 연기 기대

배우 수애(36)가 9년 만에 로맨틱코미디의 여주인공으로 돌아온다. 수애는 KBS2 새 월화드라마 '우리 집에 사는 남자'에서 기존의 청순가련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월가닥 스튜어디스 흥나리를 연기한다. 흥나리는 새 아빠라고 우기는 연하의 꽃미남 고난길과 우여곡절 로맨스를 펼친다. 상대역인 고난길 역은 김영광(29)이 맡았다. 수애는 '우리 집에 사는 남자'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로맨틱코미디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열심히 해서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작품을 선택했다"며 "저도 몰랐던 제 모습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데 시청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극 중 배역인 흥나리에 대해서는 "매사에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당기가 가득한 인물"이라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드라마의 보는 재미를 줄 것이라고 했다. 수애는 "영광씨와 호흡은 굉장히 좋다"며 "시청률 부담이 없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꿈인 스튜어디스를 드라마로나마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살 연하의 아버지는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현실에서 세살 연하의 남자와 로맨스가 이뤄진다면 굉장히 멋진 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다. 주인공인 흥나리는 뛰어난 미모에 뛰어난 순발력과 위기 대처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서른 살의 억척 스튜어디스. 기내에서는 강인하고 똑 부러진 면모를 지녔지만 실생활에서는 허당인 이중적인 인물이다. 수애는 2002년 MBC TV 드라마 '첫사랑'으로 데뷔해 올해로 연기 경력 14년 차다. 수애가 로맨틱코미디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이정진과 호흡을 맞췄던 2007년 MBC TV '9회말 2아웃' 이후 처음이다. 수애는 이후 SBS TV '아테나 : 전쟁의 여신'(2010), '천일의 약속'(2011), '아왕'(2013), '가면'(2015) 등에 출연했다. 최근 개봉한, 한국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국가대표2'에서는 북한 국가대표팀 출신 지원 역을 맡았다. 김영광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처음 주인공을 맡게 돼 떨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상파 첫 주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시작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니가 선배, 감독, 스태프들이 잘 챙겨줘서 부담을 잊고 촬영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광은 "만두 빛을 쫓았는데 장인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더라"며 "흥내는 냇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장인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광은 같은 모델 출신으로 함께 출연하게 된 이수혁에 대해 "수혁이와는 어릴 때 데뷔 쇼도 같이했고 좋은 동료, 친구로 지내고 있다"며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연기하다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는 게 힘들지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했다.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구르미 그린 달빛' 후속으로 오는 24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고쓰'로 '뇌섹남'으로 존재감 과시 하석진 달달 로맨틱 연기 여심 저격

'혼술 남녀' '1%의 어떤 것'서 인기몰이

'고쓰', '고퀄리티 쓰레기'의 준말이다. 하석진(34)은 지난달 5일 시작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고쓰'라 불리는 학원 강사 캐릭터로 활짝 폈다. 또 사전제작 드라마 '1%의 어떤 것'까지 지난 5일부터 드라마맥스를 통해 방송되면서 하석진에 주목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매주 일요일 밤 방송되는 tvN 토크쇼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뇌섹남)까지 더하면 하석진의 존재감은 더 두드러진다. 하석진은 노랑진 학원가를 배경으로 한 '혼술남녀'에서 '1타 강사'(최고 인기 강사를 뜻하는 말) 진정석을 연기 중이다. 진정석은 매일같이 '퀴얼리티'를 외쳐대지만, 안하무인인 성격 때문에 '고퀄리티 쓰레기'로 불린다는 걸 미처 모른다. 깔끔한 올백 머리에 정장을 갖춰 입은 채 등장한 하석진은 '퀄리티 떨어지는' 강사 박하나(박하선 분)를 업신여기는 캐릭터를 너무나 민살스럽게 그려냈다. 하석진의 연기는 박하나에 점점 마음을 빼앗긴 진정석이 체면 따위는 내던지기 시작하면서 더 빛을 발했다. 여자에 집착하는 저급한 연에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진정석이 온갖 상념으로 분열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폭소를 유발한다. 하석진은 13년 만에 리메이크된 '1%의 어떤 것'에서는 역시 안하무인인 호텔 상속자 이재인으로 분했다. 수많은 팬을 만들어냈던 원작 강동원과는 또 다른, 달착지근한 매력으로 여성 시청자들을 들뜨게 하는 중이다. '혼술남녀' 이전까지 하석진은 배우로서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석진은 지난 2005년 항공사 광고로 데뷔한 이후 김수현 작가의 '무자식 상팔자'를 비롯한 적잖은 작품을 거쳤지만, 반듯한 실장님 이미지가 강했다. 차고 넘치는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차별화될만한 매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지난해 2월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뇌섹남'을 통해서였다. '뇌섹남'의 이근찬 PD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하석진에게서 '공대 오빠' 이미지와 더불어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 이 PD는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배우들은 예능에서도 연기하는 느낌이 나는데 하석진은 날 것의 느낌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하석진은 싫으면 싫다, 별로면 별로일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다 망가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개구쟁이처럼 장난치는 모습도 그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뇌섹남' 하석진은 '혼술남녀'를 만나면서 크게 도약했



'혼술남녀'(위)와 '1%의 어떤 것'

다. 날카롭고 지적인 이미지와 달리 빈틈 있는 진정석 캐릭터는 '뇌섹남' 속 하석진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 남주인공으로도 재능을 보여줬다. 이는 '혼술남녀' 촬영에 앞서 로맨스 드라마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접목한 tvN '연극이 끝난 뒤'와 '1%의 어떤 것' 촬영을 내리 소화한 것이 로코 연기에도 도움이 됐으리라는 분석이다. '1%의 어떤 것' 관계자는 "PD가 대본에 없던 키스 장면을 즉석에서 추가할 정도로 하석진과 전소민의 호흡이 워낙 좋았다"면서 "하석진이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혼술남녀' 촬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정부 시장 연설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40 지구촌 뉴스	50 기분 좋은 날	00 중계방송 국회 정기회 정부 시장 연설 45 SBS 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제3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서 이런일이 (재)	
3	55 트든생활체육	00 자동부착식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특?워! 키즈스쿨 55 깨비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400cc의 기적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꽃놀이패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순다열도의 대자연 수마트라>	10:30 한국기행 (재)	15:0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0 아웅령영 귀여워	<사막의 유혹, 나미비아 1부
06:20 세계테마기행	<공니돌 육개장과 공니돌 장조림>	15:35 오솔 상자(2)	높은 사막의 노래, 나미브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출동! 슈퍼왕스	21:30 한국기행
-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가을 안행버스 1부
07:30 로보카 폴리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구불구불 오지마을 따라
07:45 꼬마버스 타요	-한국에 신다	16:45 땡땡 뽀빠이 1~2(재)	21:50 EBS 다큐 프리인
08:00 땡땡뽀뽀유치원 1~2	12:40 지식채널 e	17:30 로보카 폴리(재)	22:45 달라졌어요
08:30 얼마 깨투리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하니 1~4	<신비한 거인, 고래상어>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50 그림을 그려요(2)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보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출동! 슈퍼왕스	13:55 시계마을 티키펍!	19:30 EBS 뉴스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24일 己卯)	
子	48년생 일관성이 지속하면 반드시 성취하니라. 60년생 공 들 여왔던 것이 분명하게 가닥이 잡힌다. 72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할 것임에 틀림없다. 84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대단히 클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5, 45	午	42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입학할 수 있느니라. 54년생 오만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라. 66년생 믿고 의지하여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78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1, 92
丑	49년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갈 것이다. 61년생 확인되지 않았다면 적용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73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다. 85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73	未	43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5년생 기교를 부리지 말고 본래대로 행하라. 67년생 경중에 따라 언급을 조절해야 할 때이니라. 79년생 활로 개척을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44
寅	50년생 분수와 형편에 맞아야 감당할 수 있다. 62년생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발전이 있으리라. 74년생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이니라. 86년생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 행운의 숫자 : 69, 76	申	44년생 무리한 진행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56년생 주변의 충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68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일상의 정보에 밝아야한다. 행운의 숫자 : 55, 52
卯	51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3년생 아주 희박했던 가능성이 차차 농후해지는 위상에 놓인다. 75년생 앞찬 성취이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87년생 귀가 솔깃해질 일이 생겼다. 행운의 숫자 : 42, 25	酉	45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부드러운 논리가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69년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81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았다. 행운의 숫자 : 50, 32
辰	40년생 전문성의 확보만이 성사로 이끄는 근간이 된다. 52년생 모든 것을 보유하고 온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76년생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88년생 막힘이 없으니 만사행통하겠다. 행운의 숫자 : 09, 30	戌	46년생 고찰이 선행되어야 자질이 빛어지지 않는다. 58년생 본심과는 달리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0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2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79, 97
巳	41년생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리는 법이다. 53년생 도모한다면 발전에 밀려들기 된다. 65년생 귀인이 도우니 꾀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77년생 앞뒤를 잘 가려서 운용하자. 89년생 대척 마련을 위해 부심하셨다. 행운의 숫자 : 05, 59	亥	47년생 자체해야만 원만하게 보충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붓물 터지듯 할 수 있다. 71년생 개별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의미가 있느니라. 83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0, 24